

## 홍승혜X문승지: 사각형에 대한 경의

화성시문화재단은 로알엑스ROYAL x 에서 〈홍승혜X문승지: 사각형에 대한 경의〉 전시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 온 화성시문화재단이 화성시민의 예술적 경험을 고취하고 화성시를 문화적 도시로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홍승혜와 문승지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면서 예술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술이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작가들이다. 오랜 시간 미술계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해 온 홍승혜와 무섭게 떠오르는 신예 디자이너 문승지가 함께 하는 이 전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각형’을 모티브로 이루어진다. 홍승혜는 디지털이미지를 구성하는 사각형 픽셀에 기반한 평면,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공공미술, 디자인의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문승지는 규격사이즈의 합판 한 장을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하여 만들어진 가구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기업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제품 디자인, 공간디자인, 전시 등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승혜, 문승지 두 작가의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사각형이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출발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가 사각형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일상적 삶에서 경험되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세기의 현대미술은 추상미술에 대한 격렬한 논쟁, 폭발적인 팝아트의 확산, 모더니즘의 논의의 장을 바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이어지며 그야말로 역동적인 시기를 보냈다. 21세기의 미술은 점점 더 탈장르화, 경계 넘기, 대중과의 소통 등을 강화하며 혼돈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회화, 조각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장르 구분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오래이며, 미술은 공예, 디자인, 건축, 영화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서로간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 현대미술사에서 사각형의 발견은 추상미술의 역사이기도 하다. 세밀하게 묘사된 인물화나 사진보다 아름답게 재현된 풍경화가 사실은 물감이 칠해진 사각형 평면의 캔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은 추상미술을 이해하는 시발점이었다.<sup>1</sup> 사각형은 점에서 시작한 선이 만들어 내는 면으로, 시각예술의 기본 요소이다. 또한, 사각형은 캔버스, 모니터, 테이블, 벤치, 건물, 광장 등 우리가 접하는 일상적 사물들의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도형이기도 하다. 현대미술의 역사 속에서 사각형의 역사를 살펴보자.

바실리 칸딘스키(Vasily Kankinsky)는 캔버스 위의 점, 선, 면은 그 자체로 회화를 만들어낸다고 보았고, 몬

---

<sup>1</sup>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가 1960년대에 셰이프드 캔버스(Shaped Canvas) 작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캔버스, 종이 등 회화의 바탕면은 사각형이 일반적이었다.

드리안(Piet Mondrian)은 사물을 점차 단순한 선으로 감축해 가면서 선과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리드, 사각형으로 수렴하는 환원적 추상의 기원이 되었다. 러시아 작가 말레비치(Kazimir Malevich)는 〈검은 사각형(Black Square)〉(1915)에서 아무 것도 재현하지 않는 검은 사각형을 통해 절대주의<sup>2</sup>를 극단으로 밀어 부쳤다. 이는 러시아 구성주의에 영향을 미쳐 건축과 디자인 등 산업생산과 연계된 디자인에 대한 아방가르드 미학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1919년 설립된 독일의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기술의 통합 교육기관으로 현대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우하우스 교수들은 예술과 디자인이 정신과 융합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원, 사각형, 원뿔 등 기하학적 형태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형태의 소박함과 기능적 공리주의가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특징이 되었다. 1923년부터 1933년까지 바우하우스 교수를 지냈던 조셉 앨버스(Josef Albers)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색채와 빛의 연구를 집대성한 〈색채의 상호작용(Interaction of Colors)〉(1963)을 출간하였다. 앨버스가 1950년부터 25년간 지속한 〈사각형에 대한 경의(Homage to the Square)〉 연작은 색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일련의 회화적 실험이었다. 여기서 사각형은 그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는 순수한 조형요소로 채택되었다.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로스코(Mark Rothko)와 일군의 미니멀리즘 작가들- 라인하르트(Ad Reinhardt), 저드(Donald Judd), 칼 안드레(Carl Andre), 조엘 샤피로(Joel Shapiro), 데이빗 스미스(David Smith) 등- 역시 사각형을 순수한 조형의 요소로 채택하였다.

20세기의 건축, 디자인도 모더니즘 미술과 영향을 주고 받았고, 이 때 조형의 기본이 되었던 사각형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성에 적합한 형태였다. 20세기 초 데스틸(De Stijl) 그룹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은 몬드리안의 급진적 환원주의로부터 영향받아 탈물질적 정신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작품은 헤리트 리트펠트(Gerrit Rietveld)가 디자인한 〈빨강/파랑/의자(Red and Blue Chair)〉(1918)였다. 이것은 시트와 등받이,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골격 전체를 직사각형 단면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몬드리안의 색채와 사각형에 영향 받은 일종의 추상적 조각이라 할 수 있다.<sup>3</sup>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양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주거지를 위한 형태로 절제미를 극대화한 사각형의 건물을 디자인하였다. 미스 반 데르 로에(Mies van der Rohe)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건축은 기능성을 중시한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한다. 현대미술에서 사각형은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요소였지만, 역설적으로 사각형은 그 어떤 형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sup>2</sup> 절대주의(Suprematism)는 말레비치가 '절대적으로 순수한 기하학적 추상'을 표방하여 1913년 말부터 발표한 사각형을 그린 그림들에서 비롯되었다. 비재현적인 사각형을 회화예술에 있어서의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요소로 생각하였다.

<sup>3</sup> 샤롯데 & 피터 피엘, 『디자인의 역사』, 이경창, 조순익, 시공문화사, 2015, p. 262

홍승혜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통적 회화 작업을 하고 있던 1997년,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게 된 이래 컴퓨터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는 모니터에서 작업을 구상하지만 결과물은 평면, 조각/설치, 영상, 공간디자인 등 실제 공간에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컴퓨터 아트, 디지털 아트에서도 차별성을 갖는다. 디지털 이미지의 기본 단위인 사각형의 픽셀로 이루어진 그의 작품은 미니멀리즘 미술의 주요 요소인 사각형,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어 언뜻 추상미술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픽셀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쌓이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마치 유기체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작가가 '유기적 기하학'이라 명명하였듯이, 추상미술로만 읽어내기가 어렵다. 그는 사각형을 쌓아 올려 다른 형태로 만들거나, 살짝 어긋나게 배치하거나, 인물이나 움직이는 형상을 더하거나, 의자나 테이블, 창문, 벽 등 건축적 디자인으로 제시함으로써 추상과 구상, 기하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 미술과 디자인, 예술과 삶의 경계를 넘나든다.<sup>4</sup>

〈온 앤 오프(On & OFF)〉(2008), 〈광장사각(Square Square)〉(2012)은 홍승혜의 역량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전시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상정하고, 평면, 설치, 영상, 가구디자인 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그가 제시한 사각의 공간/광장에는 규칙성과 어긋남, 요소의 대치와 조화, 사물의 모호함과 단단함으로 구성된 작품들이 배치되었다.<sup>5</sup> 작가가 명명한 바, '유기적 기하학'과 같이 전혀 다른 성질들이 유기적으로 조우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공중 무도회(Aerial Gala)〉,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 〈써치라이트(Searchlight)〉 세 점의 신작이 출품되었는데, 그의 작품이 점점 더 확장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높이 9미터의 보이드(Void) 공간에 설치된 〈공중 무도회〉는 육면체의 틀 안에 사람의 형태가 결합된 형태로, 이들이 공중에서 무용을 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화성시문화재단과 로얄엑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첫 전시를 축하하는 의미로 제작되었다. 이는 홍승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을 기념하여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라는 문자 조각 〈말나무〉(2005)를 설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전시를 축제의 공간/광장으로 만들고자 공중 무도회를 구성하였다. 육면체 안의 인체 형상은 틀을 뛰어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브레이크 댄스〉역시 규칙적인 격자모양 안에서 댄서들의 움직임을 사각형 안에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브레이크 댄스에서 보이는 관절의 절도 있는 움직임에 흥미를 느낀다고 한다. 움직임은 공간을 계획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은 시간 속에서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써치라이트〉는 빛의 움직임과 음악으로 이루어진 공감각적 작품이다. 빛은 홍승혜가 개러지밴드(Garageband)라는 앱으로 작곡한 음악을 타고 움직이면서 공간을 탐색하다가 어두운 가운데 놓인 문승지의 오브제를 찾아내어 비춘다. 문승지의 의자가 주인공이

<sup>4</sup> 윤난지, '홍승혜의 움직이는 그리드,' 『오늘의 미술가를 말한다. 3』, 학고재, 2010 p.318

<sup>5</sup> 백지숙, '홍승혜의 사각광장,' 『본 것을 걸어가듯이』, 미디어버스, 2018, p.505

되는 순간이다. 홍승혜가 <광장사각>에서 벤치를 직접 디자인하여 사람을 모이게 하였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문승지가 벤치를 디자인함으로써 두 작가가 의미있는 협업을 이루었다.

전시 공간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문승지의 벤치는 관람객이 앉아서 작품을 감상하고,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게 한다. 문승지 작품의 모티브 역시 사각형이다. 제품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는 의자디자인에서 그의 중요한 경력을 시작하였다. 그는 2012년 스웨덴의 의류브랜드 COS와의 협업 가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스웨덴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칸디나비아적 굿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냈다. 좋은 디자인으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모더니즘의 전통 안에서 재해석되었다. 이러한 북유럽 디자인의 흐름 안에서 COS는 2007년 런던에 첫 매장을 오픈한 이래 ‘타임리스하고 모던한 컬렉션’과 ‘팀워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제작 방식’을 추구하는 기업<sup>6</sup>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창의적 프로젝트들을 전개하였다. COS는 해외 잡지에 실렸던 문승지의 <캣 터널 소파(Cat Tunnel sofa)>(2010)와 <도그하우스 소파(Doghouse Sofa)>(2010)를 보고 매장 윈도우에 전시할 작품을 문승지에게 의뢰하게 된다. 제품의 외형 보다는 본질과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문승지는 COS의 의뢰를 받고 그들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sup>7</sup>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 결과 작가는 <포브라더스(Four Brothers)>(2012)라는 의자디자인을 도출하였다. 그는 가구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가 대부분 50-60%는 버려진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료를 버리지 않는 디자인을 고안한 것이다. 그는 규격사이즈 1,200X2,400mm 합판 한 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조금씩 다른 모양의 4개의 의자 도면과 상세한 조립설명서를 COS에 보냈고, COS는 조립설명서에 따라 의자를 제작하여 매장 윈도우에 전시하였다. 2015년에 제작된 <이코노미컬 체어(Economical Chair)> 역시 한 장의 합판으로 만들어지는 의자로, 일상에서 보다 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각도와 양산/유통/보관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였다. 문승지의 디자인에서 사각형은 20세기 모더니즘 디자인이 추구하였던 기하학적 형태의 효율성, 경제성과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 21세기의 중요한 화두인 환경문제를 담고 있다.<sup>8</sup>

이번 전시에서는 사각형이 모티브가 된 <브라더스 컬렉션(Brothers Collection)>과 신작 <애니메이트

---

<sup>6</sup> COS creates timeless, modern collections made to live beyond the season. Our collaborative approach is what makes this possible. For us, art and design is the source of inspiration behind everything. Influences from the worlds of architecture, photography, textiles and ceramics permeate our collection. 출처: [https://career.cosstores.com/coscareer/sv\\_se/about-cos.html](https://career.cosstores.com/coscareer/sv_se/about-cos.html)

<sup>7</sup>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인간의 활동이 미래에도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가정책, 기업경영, 예술 등의 주요 화두이다.

<sup>8</sup> 2018년 파라다이스 ZIP에서 개최된 문승지의 첫 개인전 <쓰고쓰고쓰고쓰자> 참고.

(Animate))를 선보인다. 〈브라더스 컬렉션〉은 〈포브라더스〉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한 장의 합판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의자, 테이블, 조명을 제작한 작품이다. 이것은 2층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이 실제로 앉아서 가구를 경험하고, 공간을 탐색하며 홍승혜의 〈공중 무도회〉를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공중 무도회〉 아래에는 문승지의 의자 〈애니메이트〉가 설치되었다. 이 작품은 사각형의 철판에 하나의 혹은 두개의 선을 그어 각각의 조각들을 어긋나게 하여 만들어진 사각형의 의자들이다. 어긋남으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에는 형광등, 식물 등이 결합되어 있다. 어긋난 사각형의 결합은 홍승혜의 평면 작품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2002)을 떠올리게도 하며, 기하적 형태의 철판 의자에 빛과 식물과 같은 자연요소를 결합하여 생명력을 부여한 점은 홍승혜의 '유기적 기하학'과 묘하게 닮아 있다. 이 의자들에 갖추어진 조명과 공기정화, 그리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능은 문승지가 제작하였던 〈갯 터널 소파〉와 〈도그하우스 소파〉가 단지 사람이 앉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작된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련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그의 의자 작품들은 일상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편리하게 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관람객은 이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공중무도회와 브레이크 댄스를 감상한다. 〈서치라이트〉가 비추는 의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면 그는 무도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홍승혜와 문승지는 각자 다른 이유로 사각형을 선택했다. 사각형은 현대 추상미술이 추구하였던 순수 조형 요소로, 또는 합리적 디자인을 위한 형태로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각형은 다양하게 변주되며 예술과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다. 이번 전시는 사각형의 미술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예술작품, 디자인, 건축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술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너무도 흔해서, 너무나 일상적인 형태라서 미처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각형에 경의를 보낸다.

우혜수(큐레이터)

## Hong Seung-Hye & Seungji Mun: Homage to the Square

The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presents the exhibition *Hong Seung-Hye & Seungji Mun: Homage to the Square* at ROYAL x. In pursuit of its core values to ensure “culture for the people and life full of art,” the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organized the exhibition in order to enhance the artistic experience of its people and to promote Hwaseong as a cultural city.

The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Hong Seung-Hye and Seungji Mun, may be distinctly unique from each other, but they both focus on the role of art in life, ever exploring the many ways through which people can experience art in daily life. Hong, an artist who has taken a pivotal position in the art scene, and Mun, one of the most up and coming designers, have teamed up in this exhibition to explore the motif of “quadrilaterals” which are so commonly found in everyday life. Hong communicates with the audience through her works that traverse across the domains of public art and design, producing works of various formats including planar works, installation and media based on the rectangular pixels that construct the digital image. Mun is acclaimed for his furniture designed to eliminate waste, using entire sheets of plywood without leaving any scraps. He has been engaged in a wide array of activities including collaborating with commercial companies to design their products, space design, and exhibitions. Although each artist tells a different story, they both focus on the square as the key component and the starting point for their works. In this exhibition, Hong and Mun seek to explore how art is experienced in daily life through the motif of the square.

Contemporary art in the 20th century went through a dramatic period, from fierce debates on abstract art, explosive spread of pop art, and the post modernism era which transformed the discourse on modernism. The art of the 21st century is moving toward a new direction amidst the chaos with increasing deviation from conventional genres, crossing of boundaries, and enhanced communication with the masses. Differentiating conventional genres such as painting and sculpture has long become a futile endeavor as art today continues to erase the boundaries between diverse areas including craft, design, architecture, and film. In the history of modern art, the discovery of the square signifies the very history of abstract art. Understanding abstract art began with convincing the audience that the realistic portraits or landscape paintings are nothing more than a flat rectangular canvas with paint on it.<sup>1</sup> A quadrilateral is a basic element of visual art, a plane created by lines comprised of dots. The rectangle is a fundamental shape found across everyday life, in ordinary things like canvasses, monitors, tables, benches, buildings, and plazas.

---

<sup>1</sup> Until Frank Stella released *Shaped Canvas* in the 1960s, most background surfaces for paintings such as canvas and paper were rectangular.

Let's take a look at the history of the rectangle in the progression of contemporary art.

Vasily Kandinsky saw that the dots, lines, and sides on the canvas themselves created paintings, and Piet Mondrian gradually reduced objects into simple lines to create grids and rectangles, beginning what became known as reductionist abstraction. Russian artist Kazimir Malevich pushed suprematism<sup>2</sup> to the extreme with a black rectangle that does not represent anything in the *Black Square* (1915). This influenced Russian constructivism and enabled avant-garde aesthetic approaches to industrial design, including architecture and design. Meanwhile, the German Bauhaus was founded in 1919,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contemporary design as the educational institution integrating art and technology. Bauhaus faculty believed that art and design should converge with the mind, and emphasized geometric shapes such as circles, rectangles, and cones. Such emphasis led to modest forms and functional utilitarianism became the key characteristics of Bauhaus designs. Having served on the Bauhaus staff from 1923 to 1933, Josef Albers emigrated to America and published the culmination of his studies on color and light in *Interaction of Colors* (1963). Albers' 25-year old series *Homage to the Square* starting in 1950 was an array of painterly experiments on the interactions of colors. The squares in this work were selected as a pure shape that does not represent anything. In the 1960s, Mark Rothko and a group of America-based minimalist artists including Ad Reinhardt, Donald Judd, Carl Andre, Joel Shapiro, and David Smith also selected the square as a factor of pure form.

The architecture and design of the 20th century influenced and were influenced by modernism. Again, the square was used as the fundamental unit of form here, and proved to be the most economic and efficient shape. The designs from the De Stijl group in the early 20th century were influenced by Mondrian's radical reductionism and pursued a post-material mentality. A key work from this era is *Red and Blue Chair* (1918) designed by Gerrit Rietveld, which features a rectangular surface shaped to comprise the chair's seat, backrest, and the overall skeleton. This furniture is regarded a type of abstract sculpture influenced by Mondrian's colors and rectangles.<sup>3</sup> In order to provide the most efficient and economic living quarters during the depression era across Europe and America in the aftermath of the two World Wars, modernist architects have designed rectangular buildings that maximize restrained aesthetics. The architectures of Mies van der Rohe and Le Corbusier (1887-1965) represent the modernist approach to architecture that emphasized functionality. Although the square was not meant to represent anything in contemporary art, it has ironically held the most important position than any other shapes.

---

<sup>2</sup> Suprematism originated from the paintings of squares by Malevich presented since 1913 in pursuit of "absolutely pure geometric abstraction." Malevich considered the non-representational square as the purest, the most absolute factor in painting.

<sup>3</sup> Shlot & Peter Piel, *History of Design*, Ikyong Chang, Cho Kyung-hwa, Sigongsa, 2015, p. 262

Hong Seung-Hye has a very unique position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She worked in traditional painting until 1997, when she discovered a computer program named Paint. Since then, she has been creating her works with computer. However, she stands out from other digital artists as the output of her digital planning becomes manifested into actual material works inhabiting the physical space, whether they are painting, sculpture, installation, videos, or space design works of art. At a glance, her works “appear to be” continuing the legacy of abstract art as they are comprised of grids of square pixels, much like the way squares served as the main elements of minimalist art. However, the way the pixels freely stack and move is reminiscent of organic lifeforms. Hong herself has called her work “organic geometry,” and thus makes it difficult to categorize them as solely abstract art. She stacks up the squares to build other shapes, sometimes placing them to be slightly off-kilter, adds people or moving images, or presents architectural designs for chairs, tables, windows, and walls. Through this, Hong traverses the boundaries between the abstract and the figurative, the geometric and organic, art and design, and art and life.<sup>4</sup>

*On & Off* (2008) and *Square Square* (2012) demonstrate Hong’s sharp artistic sensibilities. They establish the exhibition space as a work itself, comprised of various flat works, installation pieces, videos, and designed furniture. The square space or plaza she presented include works comprised of order, a state of being out-of-synch, contrasting and harmonizing elements, and ambiguity and hardness of objects.<sup>5</sup> Just as Hong said so herself, completely diff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organic geometry” have been integrated in harmony. The exhibition includes three new works, *Aerial Gala*, *Break Dance*, and *Searchlight*, which demonstrate that Hong’s works are becoming ever more expansive. Installed in the 9-meter tall void, *Aerial Gala* presents human-shaped forms trapped inside a cube-like frame, dancing mid-air in a festival. This piece was created to celebrate the first exhibition being held in conjunction with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and ROYAL x. This is in a similar vein with the installation of *Word Tree* (2005) that Hong produced to celebrate the launch of the Arts Council Korea. The text reads in Korean, “art makes life more interesting than art.” For this exhibition, Hong created an aerial ball to turn the exhibition into a venue of festival. The figures in the cubes look as if they’re jumping and moving over the frames. The regular hatch mark patterns in *Break Dance* also bear the concentrated expressions of the dancers within the square. Hong says she is intrigued by the joint movements of break dancers. Movement helps build the space, while the music coming from somewhere enables viewers to experience the space within a timeframe of reference. *Searchlight* is a synesthetic work with moving light and music to

---

<sup>4</sup>Nanji Yoon, “Hong Seung-hye’s moving grid,” *On Today’s Artists 3*, Hakgojae, 2020, p.318

<sup>5</sup> Jisuk Baek “Hong Seung-hye’s Square Square,” *As if Walking on a Familiar Path* 『본 것을 걸어가 듯이』, Media Bus, 2018, p. 505.



excite the senses. The light follows the music Hong composed on Garageband and explores the space until it finds Mun's work placed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somewhere. This is the moment Mun's chair takes center stage. Just as Hong designed her own bench for *Square Square* to draw people, Mun designed the bench for the exhibition, making this a mutually meaningful collaboration.

An exhibition space is where people gather. Mun's bench allows the viewers to take a break, and to enjoy and experience the work. The motif in Mun's work is also the square. A product design major, Mun began to make a name of himself through his chair designs. Most notably, Mun made his big break during his furniture design collaboration with the Swedish clothing brand COS in 2012. Alongside its neighbors such as Denmark, Finland, and Norway, Sweden produced many products to spread the renown of Scandinavian design since World War II. The efforts to improve life through better design led to new interpretations in the modernist traditions. Following such Nordic trends since opening its flagship store in London in 2007, COS conducted creative collaboration projects with artists of various fields as a company pursuing "timeless and modern collections" made possible through teamwork<sup>6</sup>. COS contacted Mun to design products to display on their storefront windows after seeing his works *Cat Tunnel Sofa* (2010) and *Doghouse Sofa* (2010) featured in an overseas magazine. Mun strove to remain faithful to the original purpose and function of products rather than their appearance. With the request from COS, he thought long and hard about the sustainability<sup>7</sup> COS valued. As a result, Mun created the chair design known as *Four Brothers* (2012). He drew the inspiration for this design from the fact that 50 - 60% of materials are discarded in furniture production. His aim was to ensure that no materials would be wasted from manufacturing his designs. Mun created four slightly different blueprints for chairs that can be assembled from a single sheet of 1,200mm by 2,400mm plywood. COS followed Mun's instructions to produce the chairs and displayed them at their shop windows. The *Economical Chair* designed in 2015 is also created from a single sheet of plywood. Mun considered more comfortable angles as well as the ease of mas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torage. In Mun's design, squares not only bear the efficiency and economic aspects of the geometric designs promoted by modernism in 20th century, but also have implications on the

---

<sup>6</sup> COS creates timeless, modern collections made to live beyond the season. Our collaborative approach is what makes this possible. For us, art and design is the source of inspiration behind everything. Influences from the worlds of architecture, photography, textiles and ceramics permeate our collection. Source: [https://career.cosstores.com/coscareer/sv\\_se/about-cos.html](https://career.cosstores.com/coscareer/sv_se/about-cos.html)

<sup>7</sup>Sustainability: the ability to continue human economic activity while sustaining natural environments. Sustainability is a major topic in national policies,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arts.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become a major topic in the discourse of the 21st century.<sup>8</sup>

As well as the *Brother Collection*, which uses the square as the motif, this exhibition also features *Animate*, Mun's new work. *Brothers Collection* is an expansion of *Four Brothers*. It uses each single sheet of plywood to create a chair, table, and lighting without wasting any scraps. Placed on the second floor, the *Brother Collection* is available for the viewers to physically experience the furniture themselves and explore the space while simultaneously viewing Hong's *Aerial Gala*. Mun's chairs for *Animate* are installed below Hong's *Aerial Gala*. These chairs are rectangular in shape, created by drawing one or two lines in a rectangular metal sheet to make jagged pieces. In the jagged gaps are lamps and plants. The joining of the jagged parts is reminiscent of Hong's flat work *Organic Geometry* (2002). The combination of the geometric metal chair with natural elements such as light and plants is eerily similar to Hong's "organic geometry." The lighting, air filtration, and various other features to ensure a comfortable experience on the chair exist for the same reason Mun tried to ensure that *Cat Tunnel Sofa* and *Doghouse Sofa* can be used with pets, instead of merely serving as chairs for people only. Mun's chairs with all the features should be viewed from a futuristic point of view that strives for sustainability, and his pursuit for a life that is more beautiful and convenient. The audience can listen to music and enjoy Hong's *Aerial Gala* and *Break Dance*. They could even become the stars of the gala if they sit in the chair spotted by Hong's *Searchlight*.

Hong and Mun each picked their squares for different reasons. Squares served as a pure non-representational form for contemporary abstract artists, but also as functional shapes for reasonable designs. As can be seen, there are many possible variations for squares and rectangles, which are already deeply integrated in art and daily life. This exhibition reminds us that even if we do not trace back the artistic origin of the square to its very historic beginning, it is already around us at all times in art, design and architecture. Homage to the square, because it is omnipresent, quotidian, and thus overlooked.

---

<sup>8</sup>2018 See *WOULDA COULDA SHOULDA DID*, Mun's first solo exhibition hosted by Paradise ZIP in 2018.